

#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 장학금 전달

##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제10회 고성군사회복지대회 개최 ... 대명설악리조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봉사회가 지난 25일 오후 4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고성군문회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 10회 고성군사회복지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9면〉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 관

련시설, 자원봉사단체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자원봉사자 학생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경동대 허버드 레크리에이션팀의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고성군 사회서비스 작품 전시 및 아카데미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부문 모범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19

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봉사회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 △전인숙(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이재수(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이진숙(고성군노인복지회관) ▲고성군수 표창장 △이복묵(참빛동아리) △최진훈(대한적십자사 금

강산봉사회) ▲장려원(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김은숙(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고성군의회의장 표창장 △김정남(생활개선회 고성군연합회) △이준희(대한적십자사 모란봉사회) △강현숙(고성소망노인요양원) △정명화(고성노인복지센터) ▲고성경찰서장 감사장 △심귀남(한국자유총연맹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표창장 △유윤정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함진옥(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최두규(고성군재향군인회) △정선자(고성봉사회) △가이 사포미(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임정선(고성군여성재향군인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장학금수여자 △최관영(고성고 2년) △최해미(대진중 1년) △안수관(광산초 6년) △최준혁(거성초 4년) △이수빈(거진초 4년). 최광호 기자

# 고성군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

##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소속 모범 수렵인 4명 ... 경찰 · 소방서와 공조

고성군은 야생 멧돼지의 도심 출현에 따른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멧돼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소속 · 고성지회 소속 모범 수렵인

4명으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한다.

또 고성경찰서 · 속초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해 신고시 상황 공유 및 즉시 출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멧돼지 출현시 현장 대응요령 등의 매뉴얼을 제작해 주민 및 등산객에 제공할 계획이며,

산립내 도토리 채취방지 단속 및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한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결과 멧돼지 85두, 고라니 101마리 등 총 186마리를 포획했다.

최광호 기자

# 농어촌공사 영북지사 김장담그기 봉사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최돈환)는 지난 21일 고성 가리따스 마테오 요양원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영북지사 직원들은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6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담그기와 주변청소를 실시했으며, 어르신들의 청결을 위해 천연비누도 전달했다. 원광연 기자



지난 21일 거진선적 정치망어선이 혼획한 밍크고래.

# 거진 정치망 밍크고래 혼획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가 조업중인 어선에 의해 잇달아 혼획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1시경 거진항 북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죽은 채로 걸려 있는 길이 5m, 둘레 2.2m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이날 새벽 4시 20분 쯤에는 속초 외옹치 동방 1.8마일 해상에서 길이 2.2m 둘레 1.2m의 긴부리돌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으며, 19일 오전 7시경에는 거진동방 1.5마일 해상에서 길이 2.3m 둘레 1.2m의 긴부리돌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속초해경은 고래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등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어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해 각 선장에게 인도했으며, 혼획된 밍크고래는 수협위판장에서 위판됐다.

한편 올해 들어 영동북부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30마리이며, 밍크고래는 지난 8월 주문진에서 혼획된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원광연 기자

# 고성라이온스클럽 장학금 기탁



고성라이온스클럽(회장 최인선)은 지난 20일 자체 등반대회에 앞서 고성고교 2명, 동광산업과학고 2명 등 4명의 학생에게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신문 구독신청  
☎681-1667